(大正九年四月一日 第三種郵便物認可) 大正十年九月十五日(木曜日) THE DONG-A DAILY SEOUL 第三百八十三號 (一)

東亞日報

新聞定價 購讀料 廣告料 [illegible]
發行兼編輯人 李相協
印刷人 李容文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東亞日報社
電話 [illegible] 振替口座京城 [illegible]

駐中米國公使의演說
中國에對한米國態度 太平洋會議의目的

中國은列强으로부터正當한待遇를受하여야하며 中國은自由와統一政府를成立하야그國家를鞏固히함이必要하다 米國의中國에對한意見과中國民에對한忠告를말한新駐中米國公使샤ー맨氏는徐總統에게國書를捧呈하고米人協會招待席上에서演說하야갈아대

「今日의中國狀態는列國이競爭하야勢力範圍를設定함이一八九九年時代와同一한危險狀態에在하도다 華盛頓會議는太平洋及極東에關한諸問題를 그危險에陷하기以前에解決하야써目下의危機로부터中國을救援하는機會를作하라하는것이라 余는信하노니 華盛頓會議에서는公正한精神과充分한善意가根本主義로承認될줄로하노라 米國政府와밋米國々民이該會議를計劃한것은 純然히上述한바精神에基한것이니 太平洋及極東問題에緊切한利害關係를有하는中國은列國利害의錯綜하는地인즉 그共通利益을保護하는것은모든國民의責任이며 그모든國民의第一責務는中國의獨立及領土의保全과 모든國民의對한商業貿易上의機會均等과門戶開放主義를確保함이是이라 然而中國이萬一現在의危機를脫出하기爲하야他의助力을要한다하면 列國은此에對하야援助를不惜하여야할것이라 米國國務卿휴ー스氏의有名한一句「共同動作」은實로華府會議의基調이라」하얏도다

이제此演說을分析하건대 첫재 中國의一八九九年當時의勢力範圍設定競爭의危險과同一한時代에處함을論破하고 둘재太平洋會議는此危機를除却하기爲하야 「모든國民에對한友誼的尊敬」「公正한精神」「充分한善意」를根本主義로承認하여야할것을力說하는同時에그와갓흔精神이有한것을聲明하고 셋재中國의實地問題에對하야는中國은列國의利害가錯綜하는곳인즉 그共通의利害를保護함은列國의責任이라 故로獨立과領土를保全하며機會均等과門戶開放主義를確保함은列國의第一責任인것을說破하고 넷재最後에列國은共同히中國을援助하여야할지며 且「共同動作」은米太平洋會議의基礎이라하는四段에分할수잇나니 所謂一八九九年當時의形勢는如何한形勢이엇든고 他人의임의熟知하는바와如히 獨逸은膠州灣을 英國은威海衛를 露國은旅順大連을 佛國은廣州灣을租借하고 日本과佛國은福建及東京地方等地의不割讓을中國에게要求하야 中國存在에危機를呈하며列國自由貿易에障壁이生하게되매 이에米國은獨逸과列國에對하야中國의門戶開放 領土保全主義를提唱하고 列國의保障을求하는實狀이라 이제米國이太平洋會議를提唱하고 다시門戶開放主義의確立을主張하니從此를對照하야熟考하면吾人은奇異한所感이不無하도다

米國의目下의中國狀態를一八九九年當時의形勢에比하야此를救하되一層嚴正한門戶開放主義의確立으로써하자함은그무엇을意味하는것이뇨 要컨대歐洲大戰以後에中國에對한列國의形勢는大히變動하야如何한國家는特殊한地位와權利를有하고如何한國家는不然하야平均을失할뿐아니라中國存在에對하야危機를包含하며따라極東平和에暗雲을起케한다함이니 이에中國에對하야公正한待遇라함은武力이나그他의强力으로써侵略的態度를取하야中國의意思를無視하지말고그國家的權利를正當히認定하여야한다하며 中國의進步發達을엇더한特殊國家가專擅하야阻害할것이아니라 列國의「共同動作」으로써하여야하며 따라모든國民에對하야門戶開放에自由主義를取하여야한다唱道하는도다 吾人은由此觀之하야華府會議는中國의地位를向上하며 그權利를認定하며 在來의不義한條約을討議하야 一面에中國의不利를除去하고 他面에列國의利益을增進하기로目的하는줄아노니 [illegible] 根本主義를삼으며「公正한精神」으로써中國에對할것이라 이럼으로中國의提出한案件을列擧하야갈아되「中國은優先權 勢力範圍 經濟管理撤廢 鐵道自營 關稅自由와如한大問題를提出함이可하며 具體案으로는二十一個條々約의廢棄 山東問題 外國郵便局撤廢問題及 日本이露國으로獲得한土地租借權의繼續問題等을提議함이可하다」하얏도다 然則吾人이此際에希望하는바는中國人이善히努力하야此好機會를勿失할이로다

佛蘭西의革命과文學의革新(五)
八、革命慘劇의開幕

[illegible]의文人學者의唱하든自由平等論은 燎原의火와如한形勢로써各人民의間에傳播擴大되엇나니 感激性과同化力에富한是等先覺者의議論이 亦是感激性과雷同性에富한人民의間에容易히擴布되는것은當然한現象이라 如何한境遇에在하던지 群衆은他로부터投與하는暗示를非常히單純히 또한非常히誇大히解釋하는것이오 學者 文人의哲理도彼等에依하야「總히從來에尊重할만한것으로看做하던것이그實何等의價値가업는것이라」고曲解釋하게되얏다 이런新心理의第一의結果는 一般國民의不服從이되야 現出하얏나니 故로彼等은事理의是非를强히問치아니하고 오즉在上者라하는王朝及貴族僧侶에게對하야反抗하는것으로써正當한일이라고信하얏다 마담、[illegible]은當時에或貴人의馬車를驅하고郊外에出하얏는데 馭者가馬車의踏臺로乘하면서 「來年은貴下가馭者가되고 我等은車中의人이될것이라」고한말을記하얏나니 이곳當時風潮의一般이라 이러한心理는瞬間에國民全般에傳達이되얏다 下級僧侶는高僧에게對하야 地方의貴族은在廷의貴族에게對하야 臣隷는君主에게對하야 村民은市民에게對하야各히反抗의意를示하얏나니 此思想은直히軍隊의中에도入하야 將校等은人道主義를唱하야 喋々히哲理를談하얏스며 兵卒은最下級의人民中에서募集한者임으로 哲理를談함과如한事는無하얏스되 亦是上官에게服從하는것은甚히조아하지아니하얏다 彼等의頭腦에는平等一切의觀念은單히首領을廢하고 一切의服從을廢하는意味로解釋하얏다 그리하야人心은刻々히危險의程度를加하고 何等의機會라도行하면장차一時에爆發할形勢에在하얏다 實로一七八八年에在한狀態이엇섯다

先是하야一七七六年에[illegible]가貴族高僧의反對를受하야罷免이된後를承하야 넥켈은大藏大臣에任命되고財政의局에當하게되얏다 彼의在任中에는마츰米國獨立戰爭이起하고 佛蘭西는此를援助하기爲하야多大한軍費를費하얏나니 그리치아니하야도紊亂한財政은더욱窮迫을告하얏다 넥켈은歲入의增加를計치아니하고 한갓民力의休養에만勉力하야 租稅의不公平을改善하고、行政監理를斷行하야王宮의冗官五百餘人을減하고專혀消儉方針에依하야歲計의窮困을救濟코자하얏다 彼는또地方各州에貴族、僧侶、平民으로부터成한州會를開하고 選擧權은財產의多寡에不拘하고 人口의多少로써定하라하얏스나 貴族의妨害로因하야實行함을得치못하얏다 一七八一年彼는有名한「歲計報告」를發表하야國庫의現狀을公開하얏나니 此公開的政治는中等以下의階級으로하야금深히歡喜케하얏스나 그러하나此와反對로王族高僧等은此를憤히하야 彼로써國家宮廷의威嚴을損한다하야藏相의地位를去케하얏다 그다음에大藏大臣이된카론누는一種의投機的政略家이라 彼는財政의信用을維持하는道는消極的儉約의方針을捨하고 積極的으로盛히財를散하야世間을繁榮케함에在하다하고 高利의金을借하야宮廷及王族의用度를豐足히하고 더욱〳〵奢侈의風을煽揚하얏다 그럼으로그結果는自然히佛蘭西政府는債務의利子를支拂함에도窮하게되야 歲出이不億法에對하야歲入은僅히四億法에不過하야 財政上에大破綻이來할것은到底히免치못할形勢이엇섯다

最近朝鮮産業發達의大觀(十)
一記者
金融機關의發達
一、一九〇五年當時의銀行狀態

現代의銀行制度는全然히在來朝鮮에는存在하지아니하얏고 오즉그金融에對한機關이라할것은典當業者던지 客主라든지하는것等에不過하얏다 그中에客主는銀行業에近似한業務를行하얏스니곳金錢을貸付하며 預金을受하며 비록不完全하나마約束手形類의割引을行하얏다 朝鮮에서처음으로銀行業務를行하게된것은 日本의第一銀行인데 同銀行은一八七八年에釜山에支店을設置하고 日本과朝鮮間의貿易이漸次로增進함을따라其他各地에支店을開設하게되야 朝鮮內商業의重要地로서그支店을有치아니한곳이업시되얏다 또日本人의銀行인第十八銀行은一八九〇年에朝鮮에支店을開設하게되고 第五十八銀行은一八九二年에朝鮮에創設되얏는데 그後百三十銀行과合併이되얏다 此三銀行이一九〇五年當時에朝鮮에存在하든日本人의銀行이오 朝鮮人의銀行企業이勿論되지아니하얏스나 大概는失敗에歸하고 그中에오즉漢城銀行과天一銀行이殘存하얏슬뿐이다 그러나銀行의業務를實地에行하야간것은漢城銀行一個에不過하얏는데 이銀行은本來個人의營業이엇스나後에第一銀行의援助下에서株式會社로變更이된것이다 그러나그進步가極히不滿足한것은勿論이얏스며 天一銀行으로論之하면 事實上休業狀態에在하얏슴으로 곳銀行이라稱할것도업섯다 이此等銀行의活動區域으로論하면 日本人과朝鮮人의것을勿論하고 大都市와開港場에限하야잇슴으로 그他地方의人民은別般의利益을受치못하얏스며 또香港上海銀行團과그他西洋人의銀行이仁川에各히代理店或은支店을設置하얏스나그業務는金錢을交換함에不過하야 特別한影響이無하얏다 如此한銀行狀態에在하야 朝鮮政府와人民에게至重한關係를有하며至大한影響을及하고따라그經濟發展에多大한貢獻을行한것은吾人이屢次說明한바第一銀行이라

二、臨時中央銀行으로서의第一銀行

第一銀行은勿論日本銀行界의最古한者이며가장勢力이有한者이나 그러나結局은一株式會社에不過하는것인데 그와갓흔私立銀行으로釜山이朝鮮의唯一한開港場이든時에同地에처음으로支店을開設하고 그後에元山、仁川、木浦、鎭南浦等이亦開港場으로決定됨을따라漸次로支店을開設하게되얏다 京城支店은後年에朝鮮全道에對하야中央銀行의業務를行하게된것인데一八八八年에開店하고 平壤、大邱、開城、城津等에도亦支店이設置되얏다 同銀行의業務는上述한바西洋人의業務와갓치朝鮮과日本間의貿易의便宜를圖謀하기爲하야金錢을交換함에不過하얏스나 時日의進行을따라그他의銀行業務를加하게되고 日淸、日露兩戰爭時에는日本政府의命을受하야本國庫의事務를同銀行에委托하얏섯다 그러나同銀行이朝鮮에對하야行한가장重要한事業은그初期에朝鮮의關稅收納事務를取扱하고그關係로朝鮮의中央銀行인職務를取扱하게된것이다 第一銀行이朝鮮의關稅事務를取扱하게된것은朝鮮稅關의監督兒 모ー렌돌르프가契約을締結한一八八三年인데 當時에同銀行이發行한銀行券은처음에는朝鮮貨幣를基礎로하고其後에도銀或은멕시코달라를基礎로하야發行하얏스니곳此等貨幣도關稅支拂함을容易하게하기爲함이라

李朝人物略傳(四)
革菴 金鍾楨(抄)
宣祖朝(續)

金德齡 字는景樹니光州人이라 神勇이絕倫하야盛怒하면目에火光이出하야비록暗夜라도數里를燭照하고 地에臥하야서數仞閣을超越하고 或、馬를馳하야房闥에入하얏다가곳馬를回하야躍出하고 或、山坂에서劍을揮하면左右樹木이風雨와如히散落하더라 李貴는「龍虎를捕逐하며空中에飛走하니 智는孔明과如하고勇은雲長과如하다」하니라 德齡의집이寒微하야儒業을習하나人이知할者ㅣ無하더라 壬辰亂에其兄德弘이高敬命의參謀되야錦山에서死하니 德齡이持服在家러니 其姊夫宋甑은慷慨士라 起兵함을緊勸하되 德齡이未決하더니、마침潭陽府使李景麟과長城縣監李貴가德齡을朝에交薦하니라 밋世子南下하야赴難함을論하니 德齡이所善하는壯士崔聃齡等數十人으로더부러兵을起할새 田宅을賣하야器械를造하고 傳檄募兵하야精壯五千餘人을得하다 時에朝廷이和議로써諸將을戒하야交戰치못하게하니 德齡이晉州에留屯하야攻戰의備를益治하고屯田을廣置하야戰守의計를完成하야攻倭함을累請하되 朝廷이또許치아니하니라 時에德齡의威名과其成功할을疾忌하는者ㅣ有하야百端으로沮害하니 德齡이功이成치못하고禍가또不測일줄을知하야憂憤을不勝하고晝夜縱飮하더라 都體察使尹斗壽ㅣ德齡으로하야금巨濟屯倭를擊하게한대 德齡이忠勇、翼虎、旗를船上에樹竪하고鼓噪하야進攻하니 倭賊이嬰城固守하거늘 德齡이劍을舞하야戰을挑하되 倭兵이마침내動치아니하더라 時에尹根壽ㅣ湖南을採訪할새 德齡의濫刑함을毁하고晉州에逮繫하야맛杏啓聞한대 右相鄭琢이力救하야釋放하다 未幾에鴻山人李夢鶴이叛하야 德齡과連通하얏노라詐稱하는지라 徐渻을遣하야德齡을捕하고鐵鎖와巨木으로써縛束하거늘 德齡이笑曰、「내만일叛코자하면此物이엇지써나를束縛하리오」하고 怒하야身을奮하니鐵鎖가皆絕이라 供에就하야曰、「臣이國의厚恩을受하야滅賊할을自誓하얏거늘엇지逆離를從하야叛하리잇가」 上이諸大臣더러問한대 鄭琢、金應南等이其不叛함을力陳하되 上이不聽하야嚴鞫하니 脛骨이皆碎하야獄中에서竟死하니 年이二十八이라 郭再祐、崔聃齡이同時에繫獄하얏다가다釋放하니라 德齡이일즉詩를作하야其志를述하야曰「絃歌不是英雄事 劍舞要須玉帳遊 他日洗兵歸去後 江湖漁釣更何求」ㅣ라 英宗朝에至하야兵曹判書를贈하고謚를忠壯이라賜하니라

日米의海軍制限이如何(卄五)
日本親善의要點(續)
望月小太郎氏論文
「太平洋會議에對한日本輿論의一段을紹介」

日本國民의그太平洋에對한要求는一히此人道의大本ㅣ即國民的生存의絕對必要條件ㅣ인그合理的發展에存在한다 然而日本國民은此太平洋에對한合理的發展方法에關하야欣然히米國에게太平洋問題交涉의外交手形을振出한다 이제米國은世界의列强을召集하야軍備制限會議及太平洋會議를開催하게되얏나니 有史以來로人道正義外에何等의國是가無하다고自認하는米國이

以上余의要證述한事實과推理에基하야 軍備制限의根本問題에 日米間外交의難關을解決하면 이에日米兩國은共同誠意를披瀝하고 此軍備制限의實的解決에從하야 或은豫算의公平的節減으로 或은艦艇造船의比較制限으로 或은潛水艇建造制限으로 或은通商用以外의海上飛行機制限으로 米英日三國의協定과進하야는世界의軍備縮少의實現을期할것이다 이實노世界의平和를爲하야 人類의幸福을爲하야 余가切히米英朝野識者의敎를仰하라하는所以이다(望月小太郎氏論文完)

論評一言

望月小太郎氏의以上論文은要컨대 日米戰爭의可能性이無한것을劈頭에論斷하고 兩國의軍備關係와外交問題를歷史的으로陳述하야 兩國誤解의責任이必히日本에만存在치아니한것을論證한後에 兩國親善의要點을擧하야 日本은米國의南北米利加에對한몬로ㅣ主義를承認하고 米國은日本의極東에對한合理的發展을是認함에在하다하얏다 換言하면活動分野를定하자함이니 米國은南北米利加大陸에서特權을持하고 日本은亞細亞大陸ㅣ極東方面에서特權을持하자함이라 更言하면石井란싱의共同宣言을維持하자함이로다 此는帝國主義的惡式政治家의常套語이며常用策이라 在來에帝國主義的國家間協定의그어느것이『勢力範圍』或은『活動分野』의協定을基礎하지아니함이有한가 그러나그終末이戰爭의悲劇을演出함은世人의熟知하는바와如하다 往昔에米國은歐洲에對하야大西洋을分界하고 몬로ㅣ主義곳孤立主義를固守하야왓스나 이제太平洋에對하야此主義를適用하라함은 맛치大西洋과太平洋兩方面에發展하지말고亞米利加大陸에籠居하라하는것과無異하니 이엇지漸次로工業國이되며가는 米國의能히堪할바이리오 日本이亞細亞大陸에發展할必要가有하다하면 米國이亦그러할것은勿論이라 그러면門戶開放主義를提唱할것은그熱心으로보아도可히알것이라 歐洲에對하야孤立主義를取하라하는米國과極東方面에對하야門戶開放主義를主張하는米國과는그精神과立地가同一하지아니하다 然則「分界의協定」을希望하는望月氏의此論文이結局戰爭에終한帝國主義的協定의前例와同一한運命에歸하지아니할가(記者)

東亞短評

◇西藏、問題는英中兩國間年來懸案으로山東問題보다도重大事 華府會議提議決定은當然

◇此는 西藏이印度接境인關係上英國이手中에入코저함이 問題의發端인즉正義는在中國

◇山東、問題에對한日本의交涉條件은正式發表된貌樣이나中國側이此에不應할것은昭然

◇日本、의條件은九條이나無條件遝附를希望하는中國은一二條의文句羅列부터大忌事

◇突然、히奉天軍의南下를報하고又復直隸軍의北上을傳하니 奉直衝突이豫想보다速來乎

◇大連、會議는智多側의讓步로經濟條款의協定은大略成立할報하나撤兵實現은在何時

◇廣東、과歐露의提携가確實히立證되야停頓된中國智多間의交涉前途에一暗礁를又加

◇中米、南米의諸國間에는近來何故로紛爭이不絕하는지 國際聯盟은此의處理에幸兎無聊

◇吳佩、孚一派의提唱한廬山會議는北京이反對하고廣東이又拒絕廬山이아니라流產會議

◇印度、非協同派의運動으로衣服及商人은外國製品의不賣를誓約云云 劍보다此가可畏의事

● 求職業諸位의大福音

販賣員大募集

金拾圓以內의弱少한資本金으로每月百餘圓以上의實利益을得하는安全第一의好職業이有하오니 有意諸氏는至急히本書林으로照會하시오 詳細規則書와說明書及實品을親切히付呈하나이다

但照會하실時는必히金三十錢을振替口座四八五九番으로送付하시오

京城鍾路 新明書林 白

唯我林之同譜ㅣ己爲聚告于新聞紙上而僉宗想必周知也然而於京城府資洞林敬鎬ㅣ方自稱林氏大同宗約所以虛唐之說欲害于吾宗ㅣ豈不痛嘆哉此都是不知敦睦之義而辱及先祖之致唯願僉宗勿信虛荒之說倍前加力無至漏譜之嘆敬要

慶北星州郡船南面新夫洞 林氏大同譜所

都有司 魯皙 載旭 京瑞 有春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花柳病 (入院隨意)(診察無料)

仁川府寺町二番地(天主敎堂右側)

順天醫院

院長 林在夏 任賢宰

最新增補 新編尺牘 全一册 定價壹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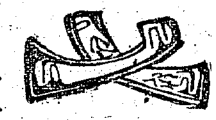
現今에發行된尺牘이其類가數三十種에達한지라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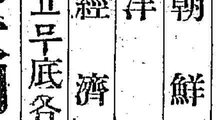
新舊書籍都賣散賣迅速酬應함

京城蓬萊町一丁目八八 振替口座京城二〇二三番

博文書館

朝鮮鞋 洋靴 經濟靴 고무底各色靴





秋期大割引販賣함

物品定價目錄及時價表난請求하시는대로即時無代進呈

但地方에는引換함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三四

太昌號 靴店

釜山府本町三丁目二十七番地

貿易商 高麗商會

穀物、綿布、海産物、委托販賣

支配人 金喆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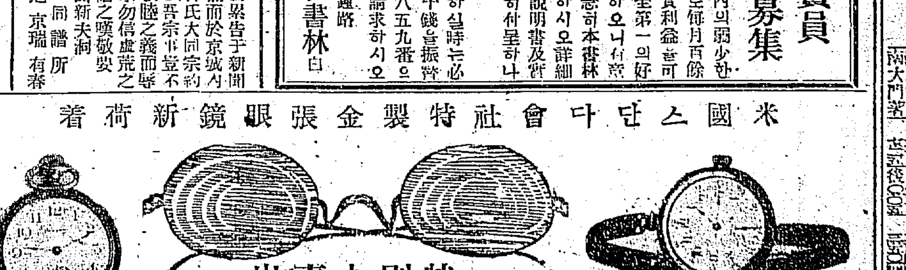
電話長 七三九番 振替京城 三六五九番

開城北本町四九四

고무底便利靴製造元

松都靴店

米國스단다ー드會社特製金張眼鏡新荷着



特別大賣出

秋季大賣出 一割特減

今年秋季에四海僉位에報答키爲하야 製品이美麗하고品質이良好한米國스단다ー드時計製造會社製品과眼鏡을多數輸入하야廉價로大發賣하오니 此好期를勿失하시고一次試用하압소셔

五年保險付 三圓五十錢
十年保險付 四圓五十錢
十五年保險付 五圓五十錢
廿年保險付 六圓五十錢
廿五年保險付 七圓五十錢
廿五年保險付 三〇番 八圓五十錢

無體는每個五十錢이增加함

以外에도各國懷中時計、腕時計、各種眼鏡、遠近視度數玉、天然水晶玉多數具備하압나이다

各病院指定度數玉販賣店

京城鍾路二丁目七七番地

眼鏡時計 貴金屬部 販賣及修繕專門商

明眼堂

主 張熙元

振替口座京城七一八四番

支店 鍾路二丁目二十五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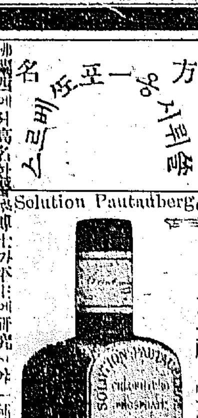
(御注文時에는有無體와住所氏名을明確히記載하시압)

肺結核(始初와)氣管病의靈藥

西洋에서發明한 肺結核不足症及呼吸器管의神藥

방명 솔류숑포ㅡ당베르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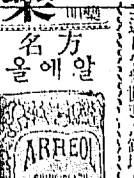
Solution Pautauberge



肺經虛弱 吐痰見血 消食順氣 久年咳嗽 喘喝迎氣

[illegible]

麻疾藥 名方 알에올



價格 壹瓶 三圓

[illegible]

朝鮮總代理店 京城鍾路二丁目五五番地 電話九九五番

大昌洋行 L. RONDON & Co Seoul

京城特約販賣店 仁義靈神丸本舖 仁義堂藥房 全義桓

◆廣告도記事

廣告도重要한一種記事이라 注意하야熟讀玩味하면實益과趣味가不少하오

專賣特許

萬年筆用 筆記用

아사히잉크 アサヒインキ

粉末 青黑、群青 赤、青、黑

地方在住諸彦은 爲하야本粉末잉크를推獎하오니 携帶至便하고溶解容易、色澤鮮明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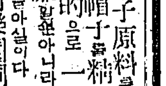
發賣元 川崎商店營業部

京城大和町一丁目 電話二八三〇番 振替京城六七一番

本人이帽子原料를直輸入하와左記處에서學生帽子를精密히製造하여都賣하오니 試驗的으로一次注文하여보시면價格의低廉할뿐아니라品質과製度가堅固美麗한것을아실이다

學生帽子製造 並附屬品原料 都賣商

京城府樂園洞二六



永豐帽子店

主 李寅鎔

ドクトル 中村齒科醫院

技工主任 文熙台

明治町二 (フランス敎會下) 電話一五八二番

○○○委托部特設○○○

本社에서는業務를擴張키爲하야九月一日로부터委托部를(本社後便)에特設하고內外國物產의委托賣買及其金融을取扱함

京城府貫鐵洞二百十九番地

東洋物產株式會社

京城貫鐵洞二百十九番地

委托部主任 全致文 金準元

歐洲時事

英失業暴動再發

「리버풀」에 失業者의 騷擾가 再發하야 警官은 棍棒을 揮하야 暴徒에 當하얏는대 逮捕된 者가 百名에 達한 小多數는 投獄되고 又 病院에 收容되얏더라 (倫敦十二日發)

伯林電氣局罷業

伯林電氣局職工은 同盟罷業을 行하야 全市의 電車運轉이 中止되고 夜에는 電燈이 無하야 暗黑하게 되얏더라 (伯林電)

希土交戰稍停頓

希臘土耳其兩軍의 交戰은 停頓의 狀態에 在한대 希軍은 「앙고라」市 郊外에 在하야 兩軍이 交戰함에는 戰備만하야도 容易치 아니하더라 (아나도리야 十一日發)

露國饑民同情案

英國勞働組合大會決議

英國勞働組合大會는 目下 前例업는 慘憺한 飢饉의 災厄에 呻吟하는 露國饑民에 對하야 絶大한 同情을 表하는 旨의 決議案을 可決하얏는 바 同決議案은 更히 英國勞働組合에 對하야 飢民等에게 可及的 財政上의 援助를 與할 事를 要求하야 諸勞働組合聯盟理事會에 露國勞働者救濟의 資金을 調達하는 權能을 附與하고 又 同理事會에 對하야 至急히 一千磅(?)의 支出을 承認케 할 事를 勸告하얏고 又 同理事會에 對하야 全力을 用하야 政府에 現今 又는 信用取引으로 目下 露國에 最히 必要한 醫藥日用品을 買入케 하기를 慫慂할 事를 提議하고 政府에 對하야 此等의 提議를 實行을 可能케 할 事를 要請하엿더라 (倫敦九日發)

聯盟加入의 資格

理事會動議可決

國際聯盟理事會는 「비々아니」氏의 提出로써 「로-드, 쉬실」卿의 贊成한 動議에 附하야 加盟認可委員會는 國際的 信義를 汚辱치 아니한 者 又는 民主々義에 從하야 統治되는 國民에 限하야 聯盟에 加入함을 許可키로 決하얏더라 (제네바 九日發)

暹羅王의 婚約

暹羅王은 從妹 婚約한 異腹妹 「라프쟈」孃으로 正式 婚約이 成한 旨를 公表하얏는대 「라프쟈」孃은 王族에 列하얏더라 (新嘉坡十二日發)

巴威內閣辭職

巴威內閣은 首相辭職과 共히 總辭職을 行하얏더라 (伯林發)

獨逸染料復活

戰爭中 獨逸染料工業은 全然休止되야 亞米利加工業이 此에 代하야 世界의 染料界를 獨占하얏는대 最近 獨逸工業界는 恢復하야 亞米利加의 染料工業은 稍히 壓倒를 受하야 는 바 其後 更히 馬克市價의 暴騰은 對外輸出上에 多大한 便宜를 與하게 되야 此 有利한 形勢를 利用하야 有利하게 되얏더라 其結果 亞米利加의 染料는 歐洲로부터 驅逐되야 戰前同樣으로 獨逸의 獨占에 歸하얏더라 (東京電)

濠洲關稅案 修正

在「시드니」玉木總領事發 外務省着電에 依한 즉 濠洲市關稅率에 對한 稅率適用方法은 先般來 聯邦議會 上院에서 審議中이더니 修正後 九月二日에 審議를 了하얏는대 右案은 九月中旬 又는 下旬에 開會할 下院의 同意를 得하리라더라 (東京電)

軍備縮少問題

豫備會開催如何

英首相 「로이드, 쪼-지」氏가 親히 華盛頓會議에 赴함은 昨今의 愛蘭問題로 因하야 殆히 不可能하다 信하며 會議開催後에나 參列하게 될는지는 未知이나 且 豫備討議에 就하야는 準備가 成하얏는대 三日 夕刊 「타임스」紙의 報道에 就하야 一般이 信하는 바는 右報道는 眞實로 疑問의 餘地가 無하나 但 右豫備商議를 倫敦에 開한다 한 것은 關係各國政府가 同意하엿다고 하기外지는 確言키 難하니 此는 美國이 豫備會議를 開할 事를 提議한 後 米國이 此를 不顧함에 至하야 撤回함에 因함이라 「민체스터 그랜」紙는 曰 近者 傳하는 바와 如한 親提議는 英國은 提議에 比하야 更히 範圍縮少를 한 者인데 成은 單히 方策上의 協定에 關함에 不過한 것이 안인가 云云 (倫敦九日發)

華府會議와 中國

極東問題에 限하야 參加

主要五個國으로 問題並議事規則을 決定할 뿐아니라 本會議에서도 中國은 單히 極東問題에 對한 顧問의 意味에 止하리라 하는대 一部에서는 此로써 日本外交의 成功이라 하는 者가 有하나 又 一部에서는 此로 因하야 米國의 責任은 加重되얏다 說하는 者도 有하더라 (紐育十二日發)

中正使顏氏辭意

華交通系研究會는 山東問題를 利用하야 內閣破壞의 陰謀가 有한 故로 華盛頓會議代表의 外交總長 顏惠慶氏는 辭意가 有하더라 (北京電)

西藏問題提議乎

西藏問題는 多年의 懸案이 되야스나 依然히 要領을 得치 못하고 今日에 至하얏는대 中國은 此를 太平洋會議에 提出할 意向을 有하야 要에 駐英公使에게 訓電하야 英國의 意向을 叩하얏는대 十日 同公使의 電報에 依한 즉 英國도 此를 太平洋會議에 問題가 되게 함에 贊成하얏다더라 (北京十一電)

日本과 列國

「얍」島交涉의 其後

「얍」問題에 就하야는 幣原駐米大使는 日本政府의 訓電에 基하야 米政府當局과 折衝을 重하는 中인바 大體의 意見이 合致하얏는대 日本의 委任統治權은 事實上 此를 確認하고 海底電線의 處分도 但 多少技術上의 問題를 殘하고는 大體의 解決에 進하얏더라 (東京電)

露國關係

勞農政府戒嚴令

李家來電에 依한 즉 勞農政府는 「루마니아」國境地方에 戒嚴令을 布하얏더라 (東京電)

「웅겔」以下死刑

「웅겔」은 部下 六十名과 共히 死刑에 處한 바 되얏더라 (倫敦電)

饑兒四萬八千名

「볼가」地方으로부터 來한 四萬八千人의 饑餓 한 半裸體의 兒童은 「쳐리야빈스크」에 集合하야 同處로부터 西伯利에 發할 豫定이더라 (李家十一日發)

元老會議開催

山縣, 松方, 西園寺 三元老는 十六日頃에 入京하리라는 說이 有하야 十七日頃에 元老會議의 開催를 見하리라 傳하더라 (東京電)

海省事務管理問題

海相不在中

加藤海相이 太平洋會議에 日本全權이 되야 出馬함은 今에 漸次 確實性을 帶하게 되얏는대 加藤海相의 不在中 其事務의 處理를 如何히 할가함에 就하야 目下 內閣에서 講究中이라 如斯한 時는 總理大臣이 兼攝함이 通例이나 陸海軍大臣에 限하야는 大中將이 아니면 就任을 得치 못하는 規定이 有한 故로 文官인 原首相의 兼攝은 不可能하며 其他方法으로는 臨時海相을 任命하거나 又는 海軍官制第九條에 依하야 他大臣으로 外此事務를 管理케 하거나 할에 在한데 原首相은 可及的 事務管理의 方法을 取코저 할과 如하더라 (東京電)

南洋人口總數

巴里講和會議의 結果 日本의 委任統治下에 置한 南洋諸島의 現在人口調査에 依한 즉 人口總數가 五萬二千二百二十二人에 達하는대 其中 島民이 四萬八千五百五人, 日本人이 三千四百人이요 其他의 外國人은 僅少하며 又 「얍」島의 島民政所管內에 在한 人口는 八千四百三十九人인대 其中 島民이 八千三百三十八人, 日本人이 九十八人이라더라 (東京電)

山東還附條件

日本政府의 提出한 件

日本政府로부터 中國政府에 對하야 提示한 山東還附條件은 左와 如하더라 (北京十三日發)

一, 膠州租借地並中立地帶에 關한 權利는 此를 中國에 還附할 事

二, 中國政府는 右租借地全部를 商埠地로 開放하고 外國人의 居住及商工農業其他一切合法的職業의 自由를 認하고 且 外國人의 既得權利를 尊重할 事를 承諾하면 日本은 專管居留地及共同居留地의 要求를 撤回함 中國政府는 外國人의 自由居住를 爲하야 速히 山東省內 鐵道沿線을 開放할 事 右各項及開埠基礎는 中國政府와 關係各國이 協議하야 決定함

三, 山東鐵道及附屬鑛山은 中日合辦으로 할 事

四, 膠州租借條約에 根據한 人及資本材料供給에 關한 各項의 優先權은 正히 此를 拋棄할 事

五, 山東鐵道延長線의 權利及烟濰鐵道等의 優先權은 正히 此를 新對中借款團의 共同事業에 提供함

六, 靑島海岸은 獨逸租借時代의 程度에 比하야 更히 明確한 中國關稅制度의 一部로 함

七, 租借地內의 日本의 官有財產은 原則으로 하야 此를 中國에 讓渡할 事 但 營業用營造物에 就하야는 別히 協定을 行하기로 함

八, 前各項實行에 干한 細目其他實行에 關하야는 別히 協定을 行함 故로 日中兩國政府는 速히 委員을 任命할 事

九, 山東鐵道特別巡警隊組織에 關하야는 日中間에 別히 協定을 行할터이나 中國政府로부터 巡警隊組織의 通告를 接한 後 日本政府는 撤兵을 宣告하고 鐵道警備의 任을 巡警隊에 讓渡하고 撤退함

大連會議一段落

各代表는 協約調印件電問

大連日露會議는 十二日에 一段落을 告하고 休會한 事는 昨電과 如한대 右에 關하야 日本側委員은 正式으로 會議의 經過에 就하야 左와 如히 發表하얏더라 (大連電)

極東의 露國代表는 二十九個條로 成한 協約案을 提出하야 此에 對하야 日本代表는 協約의 形式으로 重要事項六點에 關하야 審議를 求하야 爾來 協議를 重하얏는데 其結果에 就하야 日露代表는 各本國政府에 對하야 過日 照會한 바가 有하얏더라 然한데 兩者가 共히 今日에 至하기外지 訓電을 接치 못한 故로 右訓電을 接하기外지 會議를 休會하게 되얏스나 會議는 圓滿히 進捗하는 中이라 即 右發表에 云한 바는 日露交涉은 [illegible]政府의 讓步에 依하야 進捗되야 經濟的問題에 一段落을 告한 故로 各代表는 本國政府에 對하야 協約에 署名함도 可한가를 電問하는 듯하다고 觀測되더라

同主要點 ― 大連會議는 兩國代表가 共히 日本政府의 訓令을 待하는 中인대 協商의 主要問題는 漁業, 森林, 鑛山等의 權利問題及通貨의 制定, 關稅, 黑龍江의 航行權等의 協定에 在하다더라 (大連電)

間島再出兵協議

間島地方의 朝鮮人과 馬賊이 協同하야 跳梁함이 益甚하야 日本의 損害가 不少한 바 此를 放置하기 不能한 形勢인 故로 政府에서는 應急取締手段을 講함과 同時에 曩者撤兵當時 中國政府의 言質에 顧하야 九日의 閣議에서 中國政府에 對하야 嚴重警告를 發하기로 決하야 即日 小幡公使에게 訓電을 發하얏슨즉 中國政府가 相當한 取締方法을 講치 아니하면 再次 間島에 出兵하게 될 뜻도 하다 云하더라 (東京電)

準專門學校指定

十三日 文部省告示로써 大正八年省第十條專門學校에 準할 學校로 左의 各校를 指定한 旨를 發表하얏더라 (東京電)

▲京城專修學校 ▲京城工業專門學校 ▲水原農林專門學校 ▲臺灣總督府高等商業學校 ▲同商業專門學校 ▲同農林專門學校 ▲旅順工科學堂

聯盟總會事業

目下 瑞西 「제네바」에서 開會中인 國際聯盟總會의 事業은 (一)各種法律並聯盟의 組織問題 (二)各種專門機關에 關한 問題 (三)軍政備制限並經濟封鎖問題 (四)社會人道問題 (五)政治的問題를 各其委員會의 間에 分하야 着々進捗中인바 但 常設司法裁判構成問題로 爲하야 特히 委員會를 設치 아니하고 將來 幹部의 裁量에 一任하기로 하고 又 理事會並事務局의 報告는 此를 總會의 討議에 附하야 聯盟의 一般政策에 關한 意見吐露의 機會를 供與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

南米에 大豪雨

死者二百五十餘

在市加古桑島領事 十二日發電 外務省着電에 依한 즉 「레시스」南米地方은 七日 夜부터 九日 夜에 亘하야 稀有의 豪雨가 有하야 河川이 氾濫하야 浸水區域이 一萬方里에 及하야 損害가 甚한 바 特히 「재산안드」市에서도 死者 二百五十四名 損害 八百萬弗에 達하리라더라 (東京電)

世界船舶의 現在

戰前戰後의 比較

英國 「로이드」의 調査에 依한 一九二一年 六月末 總噸數 百噸以上의 世界船舶은 三萬三千二百五隻 六千百九十七萬四千六百五十三噸인대 就中 遠洋航路에 從事하는 鋼鐵汽船만을 各國別로 하야 戰前 即 千九百十四年 六月과 比較하면 左와 如하더라 (單位千噸)

	六月末現在	增減	
英國	一九,二八八	增	四二
同屬領	一,九七〇	同	四三
米國	三,三三四	同	三,四〇〇
墺洪國	―	減	一,〇五三
丁抹	七六六	增	六八
佛國	三,二四六	同	一,二二六
獨逸	六六四	減	四,四四四
希臘	五六六	同	二二四
和蘭	二,二〇七	增	七六六
伊國	二,一五八	同	六九四
日本	二,八〇三	同	一,四二三
諾威	二,二六五	同	二六三
西班牙	一,〇九四	同	二二一
瑞典	一,〇〇七	同	四二五
其他	二,四九九	同	一,〇九一
合計	五四,三三七	同	一二,一七三

對露貿易資金

鮮銀諒解進捗

對露貿易促進同盟會의 資金供給에 關하야 朝鮮銀行의 諒解를 得한 으로 外에 大方針이 決定되야 目下에 尙히 詳細協議中인데 數日中에 具體案의 決定을 見할터이더라 (東京電)

朝鮮敎育의 現狀(三)

汎太平洋會席上 申興雨氏演說

七, 「各國의 學校及各敎育機關은 列國의 現在友誼를 持續하며 尤一層堅固케 하는 方針을 立할 事」

各國의 修身敎育에 國際友誼를 增進하고 國際平和를 維持케 할지라

八, 「社會運動과 其他에 依하야 成年者의 敎育을 擴張할 事」

目下 朝鮮에는 成年者에게 普及되는 文化運動이 大規模로 進行中이니 男女靑年은 各種團體를 組織하야 巡回講演을 開하며 夜學, 臨時及其他公益事業에 努力하나니 學生等도 夏期放學을 利用하야 講演隊를 組織하야 가지고 全國을 巡廻하는 者가 多하니라

九, 「農業, 家事, 商業等의 實用的藝術研究의 必要」

十, 「學校各階級의 敎師資格과 報酬」

以上 二問題는 諸問題下에 旣히 論及되얏슴으로 此에 重論치 아니하노라

終에 臨하야 朝鮮의 敎育現狀에 最히 緊要한 者는 即 學校增設에 在하나 學校는 增設하여야 益々增大하는 敎育熱에 應할지니 此에 關하야 一例를 擧하건대 去四月 京城市에 在한 八個中等學校에 入學志願者가 約七千名에 達하얏스나 此等各學校는 僅히 約一千二百名의 新入生을 收容할 能力을 有함에 不過하얏도다 故로 志願學生은 入學試驗을 行하야 合格者를 入學케 한 故로 此에 落第된 學生은 來年의 機會를 待하는 外에는 別道理가 無하게 되얏도다 如斯히 敎育熱이 熾盛하야 極度에 達한 바 現在의 狀態로 窮推하면 朝鮮人은 學校數의 增加를 要望하야 其學校는 如何한 方法으로 增設이 되던지 學校의 增設은 要치 아니치 못하리라 하노라

最近東京金融

預金增貸出減

東京交換所組合銀行週報에 依하면 十日 現在 諸預金合計는 十七億五千四百萬圓으로 前週에 比하야 一千六百萬圓이 增加하얏고 諸貸出合計는 十九億四千九百萬圓이 되야 前週에 比하야 一千四百萬圓이 減少하얏스며 金銀有高는 一億六千三百萬圓으로 前週에 比하야 四千三百萬圓이 增加하얏더라

法官五名異動

十二日의 閣議에서 朝鮮總督府法官五名의 異動을 附議決定하얏더라 (東京電)

都市計劃과 工業資源涵養(八)

齋藤音作氏談

▲都市計畫을 實行함에는 巨額의 經費를 要하나니 그리하야 其經費의 大部分은 此를 市債에 依하는 方針을 取치 아니하면 積極的 事業은 不得하도다 然이나 巨額의 市債는 確實한 償却의 豫算이 立치 아니하면 募集키 不得할지라 京城市民은 今에 速히 覺醒하야 漢江의 治水를 完成하고 又 將來에 大工業의 資源을 涵養케 爲하야 速히 積極的 治山에 努力하야 前途의 隆盛, 前途의 大發展을 明確히 此를 期待할 으로 外 安心하야 巨額의 市債를 後世子孫에게 殘할 줄노 思하노 後世子孫은 野禿의 漢江과 工業資源에 貧弱한 나 狀態로 京城市를 讓할 보다 寧히 今에 大都市가 될만한 根本準備에 努力함과 共히 速히 雄大한 都市計畫을 斷行하야 巨額의 市債를 讓함이 얼마나 感謝할지를 未知할 者로 思하노라

▲最後에 余輩는 市民諸氏에게 相議코저 하노니 朝鮮의 治山事業은 決코 他人의 事가 아니요 吾市民의 幸福과 繁榮은 斯業의 成否에 在하다 云하야도 過言이 아니라 然이나 積極的 治山事業을 遂行함에는 又 巨額의 金을 要하노나 此財源은 如何히 하면 容易히 此를 捻出할 好個의 財源을 所有하얏다 그럼으로 吾人은 此를 國家的事業이라 하니 治山事業은 國家의 事業이라 하야 其一이라 故로 後世子孫에게 大利益을 與하기 外지의 治山事業에 對하야는 公債에 依함이 合理的인 은 何人이던지 首肯하고 贊成하는 바이라 다만 今日과 如히 不安한 財界에 其募債가 許할지 아니할지는 研究의 餘地가 有하다 할는지라

▲假令募債가 不許한다하면 如何히 하면 可할가 此는 第二의 好財源이 有하도다 即 將來存置할 必要가 無한 國有林野를 賣却할 事이라 財政貧弱한 國家가 無意味로 過大한 林野를 所有하야 何時外지던지 姑...

海運界의 前途

原田朝郵社長談

朝鮮郵船會社々長 原田金之祐氏는 産業調査會에 出席키 爲하야 十三日에 入京하얏는 바 海運界에 對하야 左와 如히 語하더라

海運界의 近況은 大體로 尙今 世界的不況의 域을 脫치 못하얏스나 英國炭坑夫의 罷業의 結果로 印度方面에서 燃料의 缺乏을 感하야 最近 更히 撫順炭을 需要하게 되얏고 歐洲方面에서 依然히 食料品이 缺乏됨으로 東洋方面으로부터 穀類의 輸出이 多數에 達하야 此로 因하야 日本海運界는 漸次 活況을 呈하야 繫船을 解하는 者가 相當히 有하고 運賃과 如한 것도 幾分間 昂騰한 狀態이라 然而 此는 根本的으로 經濟界의 恢復에 伴하는 者가 아니요 局部的의 一時의 現像에 不過하는 것인즉 此로써 海運界가 恢復된 徵候라 見키 不能하니 以上과 如한 原因이 消滅될 時는 又復 不況에 陷할 것은 容易히 推測할지라 海運界의 回復은 貿易의 振興을 前提로 할 바이오 米國의 多數의 繫船을 行함으로 因하야 海運界의 全般的回復은 前途遼遠하다 云할지라 云云

上旬鮮鐵業績

噸數增加

九月上旬의 鮮鐵業績을 聞한 즉 旅客에 在하야는 總督府의 日鮮滿聯絡의 旅行期에 入함으로 因하야 一般旅客도 相當히 殷賑을 極하야 社用貨物에는 顯著히 減退를 示함에 不拘하고 營業貨物이 增加하야 結局 四千餘噸의 增進인 바 收入에 就하야는 不拘한 者가 有함은 大概 近距離貨物이 比較的 多한 까닭인 듯 統計는 左와 如하더라

	本年度
人員	四二八,五九七
比前年度	一二八,〇三九增
噸數	八二,八一七
比前年度比較	七七,五二九增
客年收入	三八三,六三七
比前年度	七七,五二九增
一日一哩收入	六二,六八
比前年度	七二八增

産業調査會開催

今日午前九時부터

朝鮮總督府臨時産業調査委員會는 今十五日 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委員長 水野政務總監 總裁下에 開催할 터인데 不得已한 事故로 今般 會議에 缺席케 된 委員은 團琢磨(三井物産會社理事長) 木村久壽彌太(三菱會社總理事) 佐々木勇之助(第一銀行頭取) 等三氏요 又 出席與否가 不明한 委員은 和田豐治(富士紡績社長)氏라더라

横說竪說

▲問題도 되지 안는 問題의 産業調査委員會는 今日부터 開催하게 되얏다 爆彈一過後의 京城에서 此를 開하게 되얏다 實質이 如何하나 外形이 如何하나 此는 今에 更히 論評할 必要도 업다하고 ▲「朝鮮産業의 大方針을 愼重審議한다」는 總督府의 大看板은 無割引으로 認하고라도 會期 僅五日間에 形式이나마 此審議를 終了한다하는 것이 一種의 奇蹟과 갓치 思惟된다 此를 某紙記者의 意見과 如히 産業紹介委員會라고 看板을 改塗하는 것이 도리혀 正直할 듯 ▲總督府의 爆彈騷動이 動機가 되야 又復 朝鮮의 人心이 平穩하니 不穩하니 하는 宣傳이 官邊系統과 某一派間에 開始되얏다 此에 就하야 人心平穩說을 主唱하는 某警務當局者의 談話中 「爆彈騷動이 人心平穩의 證據이라」 함은 매우 珍奇한 文句 ▲如斯한 文句는 宣傳戰에 能爛한 總督府當局이 아니면 到底히 發明치 못할 바로 專賣特許의 價値는 確實하다 警務當局의 聰俊으로 高名한 千葉警察部長이 不遠에 渡米한다 하니 太平洋會議에서 此獨特한 妙法을 使用하얏스면 日本을 爲하야 利益이 不少할 듯하다 ▲間島地方의 不穩說이 頻々하더니 日本出兵說이 有하다 不如無事라 함은 個人間에 限한 事가 아니라 國家間에 더욱 貴重하다 東京으로부터 再報한다 하니 出兵에 外지 到치 안코 無事히 解決할 方道가 업슬가

人事

▲石塚英藏氏(東拓總裁) 産業調査委員會에 出席키 爲하야 昨十四日 午後七時五十分着 列車로 入京하야 朝鮮호텔에 ▲志村源太郎氏(勸業銀行總裁) 同上 ▲高岡能雄氏(法學博士) 同上 ▲井上角五郎氏(代議士) 同上 ▲山岡順太郎氏(大阪商船副會長) 城館에 ▲松波秀實氏(帝大敎授) 同上 ▲四條隆英氏(法制局參事官) 同朝鮮호텔에 ▲小野義一氏(大藏省理財課長) 同天眞樓에 ▲元田敏夫氏(拓殖局次長) 十四日 午前九時三十分着 列車로 入京하야 天眞樓에 ▲加茂正雄氏(帝大敎授) 同朝鮮호텔에

●尙州郡視察團 尙州郡視察團一行 五十名은 來十八日 金泉發 夜入京 二十一日 水原 仁川을 視察하고 二十三日 朝開城에 向하야 二十四日 平壤 二十六日 宜川 二十七日 安東 二十八日 雲二浦 宣地을 視察하고 三十日 朝南大門驛을 經하야 歸郡하리라더라

總督産調委員招待

齋藤總督은 十五日 午後七時부터 産業調査會에 出席키 爲하야 入京中인 各調査委員及其他關係者 六十名을 其官邸로 招待하야 晩餐의 饗應을 한다더라

新設公立普通學校

左記 公立普通學校는 共同郡守로부터 設立認可를 申請中이던 바 今般에 認可되얏더라

▲武城公立普通學校 全北井邑郡七寶面武城里所在

商況

◎朝鮮銀行券 (八月十二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日銀概況 (八月十二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發外餘力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以上千圓單位)

京株賣買高

十四日의 京株市場에 賣買成立高는 如左하더라

甲部 九千六百二十枚
乙部 二千七百九十枚
短期 五千六百十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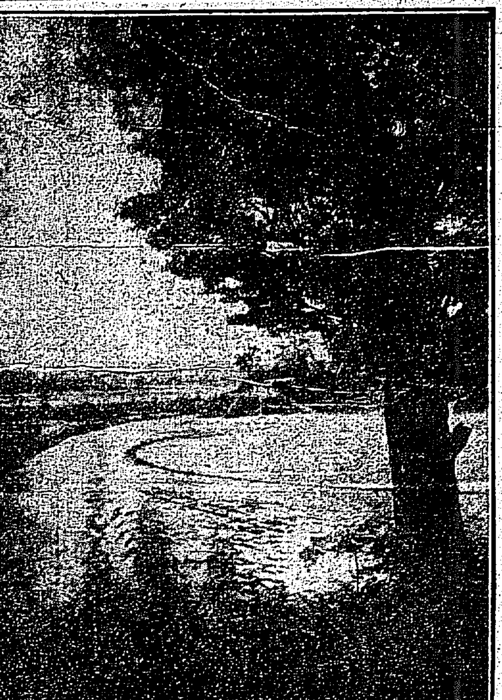
京株賣買價 (十四日)

株名	前場 今週	前場 來週	後場 今週	後場 來週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	[illegible]	―
鮮銀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illegible]	―	[illegible]	―
殖銀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	[illegible]	―	[illegible]
當銀	[illegible]	―	[illegible]	―
商銀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	―	―	―
漢銀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illegible]	―	[illegible]	―
韓一	[illegible]	―	[illegible]	―
東拓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illegible]	―	[illegible]	―
鮮土	[illegible]	―	[illegible]	―
紡紡	[illegible]	―	[illegible]	―
滿毛	[illegible]	―	[illegible]	―
京電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illegible]	―	[illegible]	―
取興	―	―	―	―
朝紙	[illegible]	―	[illegible]	―
朝郵	[illegible]	―	[illegible]	―
朝鐵	[illegible]	―	[illegible]	―
中鐵	[illegible]	―	[illegible]	―
滿鐵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illegible]	―	[illegible]	―
東京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煉	[illegible]	―	[illegible]	―

九月十四日前場 (七)

…當地亦高價인二十九圓五十錢에 …九圓二十錢에先限은正價보다六十錢으로 …勝勢로四十五錢에始하야先限은始價四十錢을高價로 高價에하얏스나大阪의漸低함으로에高付하다

反騰을轉하니一躍十五錢에始하야 …



◇중추의가경 ＝작일훈련원공원에서＝

爆彈製造,殺人放火의 普合團控訴公判

십삼일평양복심법원에서 검사는공소기각을요구히 判決言渡는來廿二日

제령위반과총포의반(制令第七號違反)폭발물취톄규측위반(爆發物取締規則違反)강도살인방화죄(强盜殺人放火罪)로 지난륙월 평양디방법원 신의주지텽에서 사형이 비명 무긔징역이 세명 기타는각々 중한징역형의판결언도를바든 보합단사건(普合團事件)의 김중도(金重道)등십일명은 일심판결을불복하고 평양복심법원에 공소를 데긔하얏던바 그사건의공판은 지난십삼일하오두시에 동법원에서 개뎡되얏는데 피고에대한 사실심문과 변호사김형숙(金亨淑)외몃씨와 옥명규(玉冥奎)등씨의 변론이 잇슨후 피고편에서 증인을호출하야 자세히 심문하야달나는 요구가 잇섯스나 재판장은 그요구를허락지아니하고 삼정(三井)검사로부터 피고등의 공소는 기각하야달나는 요구가잇슨후 판결언도는 오는이십이일로뎡하고 폐뎡하엿는데 피고등의 범죄사실은 아래와갓더라

犯罪事實 군자금강청 살인방화등

피고 김내찬(金迺贊)은 대정구년팔월이십삼일동리 김승오방에서 김중량(金仲亮)을 단장(團長)으로한 독립운동긔관인 보합단(普合團)에 가입하야 평북신의주 고관면 리화동 동암산(平北新義州古舘面梨花洞東岩山)을 근거로뎡하고 그목뎍은 군자금모집 관공리와 친일파재산가살해등으로하야 폭발탄 십여개를 제조하고 그해구월경에 텰산군(鐵山郡)에서 두어곳이나 침입하야 군자금을 강탈하고 다시 의주군 비현면 당산동 문치무(義州郡批峴面堂山洞文致武)는 조선독립을 방해하고 독립단의비용을 탐지하야 경찰관서에 밀고하는 밀뎡이라하야 동년구월 이십구일오후에 문치무의집에이르러 폭탄포와 칼을가지고 협박하며 군자금이 만원을 제공치 아니하면 불에태어죽인다고말한후 문치무를 칼로두세군데를 처죽이고 그집에 불을노아 타죽게하고 문치무의 처 김숙영(金淑榮)을 칼로지르고 정봉순(鄭鳳順)은 동십이월 이십일에 털산군에서 현금이빅원을밧고다시 리모방에이르러 삼십원을밧고그다음에 일빅오십원을바든후 동이십구일에 서림면리모의게가서 주인이업슴으로 집에다불을노아 타게하고 본년일월이십팔일에 선천군심천면 최모(宣川郡深川面崔某)에게침십원을 강탈하얏스며 동년이월득삼일에 털산내 김모의게 금천원을밧고 다시 그집에 불을노흔일이잇고 심창숙(沈昌淑)은 동년구월 일々에 털산군박과부 방에 침입하야 금빅원을 강탈하고 김형석(金亨碩)은 동리의 리성촌(李成猝)에게 금빅원을 강탈하고한리경(韓利敬)은동년구월이십팔일에 보합단을 선천군으로 가는길에 단원들거나리고 가는도중에서 의주월화면댱 신봉주(義州月華面長申鳳周)의미국식 상총한개를 탈취하얏스며 빅운긔(白雲起)는 평북천권군 디방을횡행하면서 군자금 삼천여원을모집하고 상해로부터 폭혈포두개와 화승총을준비하야 보합단원의게 분배하고 리윤근(李允根)은 동산군에서 폭발탄을내여보이면서 군자금삼십원을 내이라 가추후에 삼십원을밧앗스며 동서를밧아가지고 도라왓다가 다시가서 쳥구한즉 버이지아니함으로 그집에불을노와협박하야사다더라(평양)

십원을 빼앗고 김흥도(金興道)는동구월 이십구일에 의주군비현면 친일파장모를 칼로질너죽이고 털산군여한명에서 정문준(鄭文俊)이란사람을협박하야금이십원을강탈한것이라하며 밧게도군자금을모집하야상해가정부로보내인것이만타는데 데일심의판결은다음과갓다더라(평양)

平北鐵山郡西林面光岩洞 『死　刑』 金興道(三八)
同道同郡站止面城峴洞 『無期懲役』 鄭國順(二六)
同道同郡扶西面正部洞 『無期懲役』 鄭炳善(二七)
同道同郡西林面光峰洞 『懲役六年』 金乃秀(二四)
同道同郡同面同里 『死　刑』 沈昌淑(三二)
同道義州郡砂町六丁目 『死　刑』 金亨碩(三一)
同道同郡古舘面梨花洞 『懲役十三年』 韓利敬(三七)
同道同郡同面東岩洞 『懲役十五年』 白雲起(三三)
同道龍川郡外上面安平洞 『懲役十年』 李允根(四)
同道鐵山郡丁惠面塔峴洞 『無期懲役』 朴汝俊(二七)
同道同郡餘閑面嘉山洞 『死　刑』 金興道(三三)

平壤市內의 大警戒

십이일밤부터

평양부내에는 십이일밤부터 무장한경관이 밤을새여가면서 몹시 직히여서서 엄중한경계를하는모양인데 그내용은 자세히 알수업스나 아마도경성에서 ○○사건이 발생된까닭인듯하다더라(평양)

處女를監禁毆打

죄업는남의처녀를가두고친후 그부친의쌍쌍지빼아서먹고자

본적덕도현아파군팔번뎡속도십사번디 고권신힝(德島縣阿波郡八幡町粟島高田信幸)(三六)이란자는 몃해전에 덕도현이민이십여호가 단데가되여 오는 이민단속에셔이어서경긔도고양군중면장항리(高陽郡中面長項里)에와셔 국유미간디를 배부하야 사는배 경집이원리불량하야 그곳에사는 조선사람 들과 차홈이잣치지아니하고 조선사람 따리기를 금수가치에리든악한인대 금년음력삼월상순경에 제아우고뎐영일(高田英一)이라는자가 고동내권춘일(權春日)의딸열여덟살먹은계집애권점쇠(權点釗)와간통하얏다는말을듯고 이것을 긔화로역이어 권귀 권춘일의집에가서 잡담케하고 권점쇠를붓잡아서 제집으로 끌고가서 권귀영일이와 간통한일이업느냐 물으매 점쇠는업다하엿더니 문을거러닷고 두손을결박하야 매여달고 머리를틀느고

쌈을때리 면서 문초하야 결국 권점쇠에게 사실업는대답을 강제로듯고 계속고문하는것을 권춘일이가와서 잔상히빌어서다려갓는데 고권신힝이는 그와기를 악힝을협박하고도 유위부족하야 권춘일을협박하야 재물을빼아스리라하고 권춘일에게 딸이기를 너의딸이 나의집에와서 긔구를훼손하얏스니 네가 손해배상을하이주어야지만일그리치아니하면 네집안을 천부감옥소로 보내서 징역을식힌다고 서슬이 푸르게 얼너대임으로 권춘일은 겁이나서 배상을 무러주자하나 가세가빈한하야 엇지 할수업슴으로겨우그곳

일본사람 이 대부하고남기인 국유디대부한것 휵빌여평이나즁터이니 무사타협하야 달나고 간청하얏스나 결국고권신힝이는 시가칠십원자리 쌍을십원오십전에사고 이일이 발각될가념려하야 권춘일에게 누구에게든지 삼십원에팔앗다고 말하라한후 국유디대부증과 권춘일의 인감증명까지밧은죄로 고양경찰서에 데포되야 경성디방법원에서 징역팔개월에 처한것을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얏다더라

三歲兒가 원고된재판

부친은횡의에죽고 위자료의청원청구

세살먹은 어린아해가 재판을시작하얏다 녯날세조대왕(世祖大王)시절에 매월당김시습(梅月堂金時習)이라는양반은 세살에능히글을 알앗는대자란후에도 유명한사람 이되얏스나넷 가 세살먹은아해가 재판을한다하면 데이의매월당이나 난듯이 놀날사람도 잇겟지마는 이번재판에낫하나는 어린아해는 케가나와서 재판을하는것이 아니라 소장에 일홈만쓰고 자긔모친이 대리로하는것이라 경긔도룡인군외사면옥산리(京畿道龍仁郡外四面玉山里)사는세살먹은 리은길(李般吉)은신녀세된자긔누의 셰사람과함쇠 자긔모친풍씨(馮氏)를법뎡대리인으로 안성군읍내면서리자동차영업하는민성긔(安城郡邑內面西里自動車營業閔晟基)를거러 자동차삯다가 쩌러저죽은 자긔부친리준석(李駿錫)을위하야 위자료(慰藉料)이천원을청구하는민사소송을 경성디방법원 민사부에 데긔하얏는데 리유를보건 권긔 민성긔는작년십일월부터안성과 평퇴(平澤)사이에자동차운전영업을 개시하얏는데 그달이십오일에 리준석은 민성긔의자동차중 운전수유광수(劉光壽)가 운전하는자동차를타고평퇴으로가는대 원리자동차뎡원이 여달사람인것을 알면서도 열세명이나 태이엇섯슴으로안성군읍내면석정리(邑內面石井里)에잇는다리를 건너갈쎄에 압헤서오는자전거를피하고자하다가 원리 사람을 만히태이기쌔문에 얼른피하지못하고 다리아래로 떠러저서 리준석은 크게부상하야 골병이들어 금년일월에 사망한것이라더라

疑雲中의某會社

광주인사의큰주목

설립된지 겨우 일년도못되여서 사양이하종역이 세번이나 변동되엿스며 지배인이 갈니는등 회사의위치를옴기는등 내부에별々파란이 만타하는 전라남도광주(全南光州)에잇는 모회사(某會社)에서는지난십일々오전십시에림시주주총회를열고극히비밀한가운데 회사존폐 문데등에 관한회의가 잇섯다하며 불원간에 이상스러운소동이 일어날터이라는데 그회사의혹막에 의심스러운구름이 덥히인듯하야 일반디방인사는 이회사의 전도에 대한주목이비상하다더라(광주)

黃人種의同盟運動

태평양회의를긔회로하야 황인종도사람가치살자고

◇『뻬네틔』博士等의提唱

세계의대전쟁이 끗난후에 인종(人種)의권정은방금온세계를쥬심으로하야격렬하여나는중이다평화(平和)니 정의(正義)이니인도(人道)이니하야떠들기는하야도결국강한자는약한자를엿보고 약한자는 강한자를엿보는것은 소위권정후에 평화운동의리면이라할것이다 그리하야 한편에서

인종평등 (人種平等)을 부르짓는자가잇슴도불구하고한편에서는 다른인종의힘에대가날로심히여가는것도 사실인데 더욱히 빅인종(白人種)과 황인종(黃人種)의싸홈은그중에도가장중대한현상이오 황인종에게 대하야는 이보다더큰문데가 업슬것이다 이에늣긴바가잇서서 황인종의동맹(同盟)을부르지즌지도 유명한인 류학자(人類學者)『뻬네틔』박사이다박사는홍아리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의긔부부터일본동경에와서두류중인데 그는『쓰란』황인종의 장리에대하야

다년연구 중이더니 마츰 이번에 미국『화싱돈』에 열니는 태평양회의(太平洋會議)를긔회로하야『쓰란』민족의 동포혈연뎍동맹(同胞血緣的同盟)을조직할필요를 통절히늣긴결과 위선 동경에서『쓰란』민족연구자로유명한 금강십일랑(今岡十一郎)씨와손을맛잡고 자긔의 포부와 소망을 사회에 발표하기위하야 소위『쓰라니슴』『쓰란민족의살기위한동맹』의운동을 개시하기위하야 데일회의강연회를 지난십이일에 신뎐청년회관(神田靑年會館)에잇는 동맹본부에개최하얏는데 이에대하야

박사는말 하되『우리들은『쓰란』민족의 장리가 매우편안치못할줄로 생각하며 다년연구의결과 다른민족을 자긔네의안결과『아리안』『빅인종』민족도예를 삼고자하는주의에 대하야불가불 우리『쓰란』민족은 크게동맹을 하여가지고 이에대항치아니하여서는 아니될줄로 섬각하오 보시오 토이기(土耳其)사람이 구라파에서얼마나 학대를바드며서양사람이동양에와서얼마나침략을하는것은여러분이미다아는것이 아닙닛가 우리는이와가튼 성각으로『쓰란』민족의 큰동맹을 조직하지아니하야서는 아니될줄로 아오며따라서 우리의의견을발표하야 운동을하라하는것이오』하고 말하더라

『쓰란』民族의正體는何

아세아인과구라파의 동방모든민족의총칭 인구륙억팔천만

이에대하야『뻬네틔』박사와가치 이동맹의 운동을하는 금강(今岡)씨는 말하되박사는참으로 희상우의학자가아니라 자긔가실디로 그민족의사는곳을편답하야어든바 지식으로써 실제를연구한것임으로 이뎜에 대하야 누구나 경복치아니할수업소』하며 박사의인격을말한후다사이어서『쓰란』민족 이라부엇인가함에대하야 말하되『쓰란』민족이라함은 아세아인종(亞細亞人種)에다가『마잘』『토이기』『불가리아』중앙아세아(中央亞細亞)와 아라사령에잇는『핀란드』족과『우랄알타이』족등을총칭한것이니 이인종의 수효는 륙억팔천만이나됨으로 이와가튼만흔 수효의 인종이공연히『아리안』(빅인종) 종의 압대를밧고 로예노릇을할수는 도뎌히 업는것이오 빅인종의수효는 팔억오십만밧게 아니된즉세계인류의 반수에 불과하는것이오 그뿐아니라 빅인종의문명은 이제한절발달되야 더는발달할수가 업시되얏슨즉 우리는이쌔를타서 우리황인종의 손으로세계의새문화를세우며 우리의향복을도모하자는것이 우리의 목뎍이며그와가치하기위하야는불가불우리황인종의 동맹만드러 가지고 크게운동을 아니할수업는것이라하는것이『뻬네틔』박사의수쟝이오』하며말을하는데『뻬네틔』박사의 나히는 오십삼세오녀성은 오로지황인종의 운동에박힐 결심이라고 말하얏다더라

◇황인종동맹을데창한『뻬네틔』박사

延白地方은大凶年

궁민은발서부터류리걸식 디주의처치가또한큰문데

황해도연빅군은 서도에 유명한 미곡산디로 황해도에서 나는쌀의 삼분의일을 뎜령하는곳인데 불힝이 금년은초춘부터 한재가 계속하야 수리가부족한곳은 전부가뎍디로되고 늦게온비에 호를베인곳도잇스나 역시 요사이감을노인하야 수확월여땅의 업습으로 일반농민은 매우불안한 상태이며 벌서궁민은 남부녀대로 유리하는자이만코 아즉남아잇는농민도 밧농사가 면흉을되며 부지하는모양인데 이들도역시 겨울을지나면 곤난이막심할형편인바 그중에도 더욱가련한 소식은 디주(地主)의 쳐치방침이라 풍설에의하면 디주들은금년에는 논농사가흉년인즉 도커니도조를 밧을수업겟스니 밧곡식의쳘반을 난호아달나고 청구한다는말이잇다 이것이 풍설이되고 도조는리번으로 미루어주엇스면 류리걸식하는 가난한농민이 부지할수도잇겟지만 만일일부분의 디주라도 흉독한 처치를할하야 추동의식량이 부족되면 연빅의농민은 말할수업는비참한디경에싸지리라더라(연빅)

梨花學堂에 怪火!

하루밤에네곳식 련속하야불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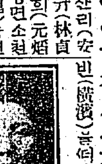
재작일오후열두시경에서대뎡동에잇는리화학당(梨花學堂)안에 이삼처소에서 불이낫섯다 그쎄는마침 밤중임으로 긔숙사학성과교원은 모다 잠이집히들엇섯는데 맛침녀교원모씨가 나왓다가 긔숙사부엌에서 불이붓는것을보고 곳긔숙사안학성의 잠을쌔이어 진화하얏는바 진화하느라고 정신업는 틈에 이층과삼층에잇는학싱긔숙사에서불이뒤를이어이러나고나종에는서양부인들이자는 염방대학부교실(大學部敎室)에까지 불이낫섯는데 다힝히 불이나는대로 발견이되고 진화하야 손해는별로업스나 깁흔밤중에 나데업는불이 낫슴은 아니라 그불이일어나는법이 비상히신속하야 순식간에 네곳에서 불이난것은 매우괴상한일인대 그학교의월터교장은새로세시싸지 진화하고피곤하야 누엇고 어느교원은 말하기를『독갑이불인지 사람의불인지 알수는업스나사람으로누가죄가업는녀학싱

수빅명을 일시에 불속에 늣코자할리가업고 또독갑이불이라는것도 말이안되며 정신병자의소위나아닌가하오』하고 말하는데 소관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즉시수명의수직경관이 출동하고 경성소방대까지 출동하야 매우 혼잡하얏스며 작일아츰에는 불날쎄에발견한 교원과심도오륙명을불너서 당시의 상황을물어보고 뒤조사를 하는중이라더라

兩氏獨逸留學

세균학을연구코자 의학전문졸업신두명

시내와룡동(臥龍洞) 이십칠번디 리성용(李星鎔)(二九)씨는 금년봄에 우수한성적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얏는데 금번더욱 학술을연구하고자 한하에졸업한 리석신(李錫申)씨와 함셰 덕국류학을 가게되엿는바 목뎍는덕국서울빅림(伯林)에가서 세균학(細菌學)으로 세계에 유명한『와셀만』선생 문하에서 십년작뎡으로 세균학을 전문으로 연구할터이라하며 금일오전 아홉시오십분에 떠나는 남행렬차로떠나 오는삼십일에 일본횡빈(橫濱)을떠나 덕국으로 향할터이라더라



(사진은리성용씨)

十二名을又檢擧

안악경찰서의계속활동

황해도안악군 안악면서산리(安岳郡安岳面瑞山里)림뎡규(林貞圭)림창섭(林昌燮)원념희(元烜熙)류룡섭(柳龍燮)과 동면소천리(小川里)정창룡(鄭昌龍)동면비석리(碑石里)양명겸(楊明謙)림익찬(林益贊)동군안곡면봉곡리(安谷面鳳谷里) 리관섭(李寬燮)박응규(朴膺奎)리익섭(李益燮)동군대원면가양리(大遠面可陽里)리청삼(李成三) 평양부서문내(平壤府西門內) 강승창(姜承昌)등십이명을인치하야 취조중인대 그사실은 비밀의부쳐어 아직발표할자유가업더라(안악)

警察部의 鳩首會議

본뎡서당서지 참석하야협의

경긔도 경찰부고등과댱등본(藤本)경시는작십사일 오전아홉시반경에 본뎡경찰서로 자동차를 달녀길촌(吉村)동서댱과 한시간동안이나 무삼의론을 하엿스며다시 오전십시 사십분경에는 동본과댱과 길촌서댱이 동반하야 경찰부로가서 천엽(千葉)경찰부장실에서 세사람이 둘너안고 무삼일인지는 아지못하나 한시간동안이나 의론하엿다더라

樺太山火 鎭火不能

오륙일을이어타는큰불

지나간 구일부터 화태도(樺太島)에서산에큰불이 이러나서련일 불이붓는중이라함은 임의보도한바이어니와 십삼일에도 긋치지아니하고 거문구름이 하늘을쏘은듯이 이러나고 불이붓는중임으로 소방대는 죽을힘을다하야 진화하는중이나 그효험이 업시 화세는조금도 감하지아니하야 손해가막대한모양인데 손해는조사중이라더라(진강뎐보)

朝鮮部落襲擊한

일본군인처벌

해삼위파견군 데십일사단『크로데코우오』지대에잇는 림시통역 신곡등재(神谷藤哉)(二四)는 동디에서 근무중이든바 배일조선인의 총긔몰수한것을 구실노삼아『코사크』병의 장졸십일명을 속이여『크로데코우오』의 조선인부락을 습격하야 수삼명을 살상하고 금품을강탈하야 와버린 마적의횡동을 한고로 맛참내 데포되야 취조를바든결과 군법회의에서 징역팔년에 처한바되야 본월 돈하(敦賀)에 호송되엿는데 신곡은 기부현하천산(岐阜縣下川山)사람이라더라

跳下하다가負傷

작일에뎐차사고

작십사일 오전령시 삼십분경에 동대문을떠나 의주통으로 향하야 가는데잇빅십일호뎐차가서대문뎡이뎡목(西大門町二丁目)근처를 지나갈쎄에 리화동일빅삼십사번디(梨花洞一三四)에 사는 안치여(安致汝)(四五)는 뒤에잇는 승강대로부터 뛰여나리다가 쌍에업드러져 인사불성이되엿는데 즉시 경성병원(京城病院)에서 응급치료를한결과 대단한부상은 업다더라

◇　모　임　◇

▲소년웅변대회 금십오일하오팔시에 종로청년회소년부 주최로 다음과가치웅변회를 연다고

靑年의自覺	田作鉉
半島의急先務	李[illegible]
	李瑄根
(未定)	朴[illegible]

▲동경음악단음악회 금십오일하오팔시에 인천애관청년회 주최로 동경음악단의음악회를 내리(內里)례배당에서 개최 회비는일원 오십전 학싱소아삼십전

天氣豫報

自十四日午後六時至十五日午後六時 曇一時晴

日出 上午六時五分 / 日入 下午六時五四分

華氏十三日 最高七九.七 / 華氏十四日 正午七七.四

◇더우비교◇(華氏)

昨年昨日(正午) 七九.七
今年昨日(正午) 七六.六
昨年最高 九六.一

◆휴지통 ▲요사이 재판소에가보면 형사々건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민사々건중에는 리혼과자식송사가 웨그리만흔지 모르겟다 이것도시대의 풍조인지는모르나▲이번에는 개가간 며느리의 남편을거러서 손자를돌너보내라는 재판이잇기고 또세살먹은아해가 자동차에서 자긔부친이 써러저죽엇다고 위자료를 청구한일이잇다 이러한재판은 근래에처음보는 재판이려니와 이따위사건이 일반에게는엇더한감상을 주는지▲황해도 년빅군에는 흉년이드러서 벌서부터 농민들은남부녀대하고 각처로 류리걸식을하게되얏다 하며 디주의도조가 문데라한다 디주도저옥이 사람이면 성각이잇스려니와▲갓득이나 여러가지로 남보다 편치못한디위에잇는 조선사람으로서 먹을것조차 아조 업게되면 장차압일을 엇지하자는말인가 실로하날을 우럴어탄식▲활동사진 배우로유명한데무부운은 이번에 녀우를 죽이엇다는 협의로잡히엇다는데 또희극배우로 유명한『참푸린』군은 영국에서환락의임검이라는칭호로 큰환영과호강을 밧는다』▲다가튼 희극배우로 역시이름이세계에 유명한두사람이 동시에 이과치반데되는 형편에잇는것도 한가지흥미잇는현상

今日이最終、午後八時半부터 ＝雨天이면中止

今日! 塔洞公園納凉演奏

主演 京城樂隊 ＝ 後援 東亞日報社

15

秋夕맛

풋배、풋밤、풋대추、풋감等모든果實
오려松䭏、新淸酒等
모든햇飮食과 거긔다
各色雜것과 진이쌔는
概經쉬울선
배아리이다

○一年中에 第一조흔 秋夕名日!
◆◆◆ 비음새족기주머니속에
◆◆◆ 잇지말고너흐시기요!!

朝鮮賣藥株式會社特製

回春爲記

靈神丸

○하로가는名日에

집에서놀던지―省墓를가던지―山에를올으던지더울에를나가던지―玩月을하던지―飮宴을하던지―질거울대로질겁고、편안하게지내게됨니다

回春爲記 淸滯藥中第一 靈神丸은 ▲價一包十錢

京城 朝鮮賣藥株式會社 電(光)三八四番・振替一四八〇

地方特約販賣店募集

老少腎氣强壯劑

滋春膏

＝(主治效能)＝

▲神經衰弱 ▲陰痿 … ▲消化不良 ▲化痰降火

●滋春膏의特色

京城淸進洞百十一番地 滋春膏本舖 德盛堂

一劑十日分拾圓

袖珍詳解 漢日鮮新玉篇

美本洋裝金一冊三百八十頁 定價金壹圓 送料拾貳錢

便利에便利를求하고具備에具備를 … 本書는漢、日、鮮三文을共通하야 … 新字量無漏網羅하야 … 今에出現함은文壇界의幸福이라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七番地 滙東書館 振替口座京城七二二番

京城府寬勳洞三〇番地 朝鮮圖書株式會社 振替口座京城八二五五番 電話一九五四番

各種帽子專門

學生帽子 小兒色帽 製造都賣

京城鍾路四丁目二六 金貞商店

學生帽子新旧 式父詳細記送

漢藥 乾材 大賣

敬啓江湖愛顧家僉位益益御健康하심을仰祝하오며夏季間에在한多數하신御用命을謝함니다、本堂은漸次秋季用藥期에際하와蔘茸唐草其他各種藥材를大特價로써提供하오니此際에多數注文하시압소서

京城鍾路

和平堂藥房漢藥部

主 李應善

電話一六九七番 振替京城八一八番

붉은실

千里駒 譯

第七十回

二、붉은머리 (二卷) (五)

갓더니 그집은 조그마한벽돌집이엿다 문압헤「유일손던당포」라하엿는데 정하는그집압흐로가서 이리저리 도라다니며보다가 문압해가서 단장으로 두어번을올녀보더니 문을쑉々두들겻다 엇던 젊은사람이 문을열고 드러오라고 청하엿슴으로 정하는얼른 방을 드러가 보니 [illegible]

…

「그사람의무슨일을보러 오섯소」

「그사람의 무슨 일을 보러 왓는지요」

…

萬種新舊唐板書籍都賣小賣

京城寬勳洞 七十二番地 漢城書舘 (地方에는代金引換임)

强壯藥

老少 [illegible] 强壯藥 … 京城 … 高

合面絶對反對

忠南天安郡聖居面은 面內에 財産家가 幾個人에 不過함으로 面費及其他雜稅等에 往々困難한點이 有하나 隣接된 稷山面은 此와 大異하야 財産家가 櫛比居住함으로 諸般事業에 秋毫도 躊躇업시 着々進行하는 [illegible] … 一、交通이 不便함으로 農民으로 하야금 面手續에 對하야 莫大한 困 [illegible]

耶蘇敎總會 第一日

朝鮮耶蘇敎長老會總會 第十回議는 本月十日午後八時平壤章臺峴禮拜堂에서 第一百九十三章讚頌歌로 開會되야 會長金益斗牧師의 開會辭及祈禱와 聖經朗讀이 잇슨 後 書記金聖澤牧師의 會員點名이 잇섯고 連하야 任員을 選擧케 되얏는대 會計는 公薦式으로 하야 會長書記 [illegible] … (各地總代氏名은略)(平壤)

監獄移轉工事進行

新義州監獄은 [illegible] 地境坊外로 移轉하게 되얏는바 新築地를 平均工事를 去八月中旬부터 每日百五十名의 罪囚로 工事를 着々進行中이라더라 (新義州)

天主公敎會祝賀式

仁川區域各天主公敎會를 治理하는 神父 리네이 쓰氏(全神父)의 神品二十五週年銀慶祝式을 去十二日 上午十時부터 仁川府寺町天主公敎會廣場에서 開催하엿는데 定刻前부터 一般信者及內外國人의 來賓이 雲集하야 盛況裡에 開式辭가 마친後 敎友代表金德敏氏의 祝辭와 來賓側으로는 [illegible] … (仁川)

富利面面立普通校

全北錦山郡富利面은 同郡의 一隅에 在하야 最히 貧弱한 面이라 敎育熱이 極度로 膨脹하는 現代를 當하야 尙히 敎育機關이 設立되지 못하야 … 九十七圓(沙里院)

慶北林野査定公示

慶尙北道에서는 去七月十六日부터 九月十五日까지 金泉、漆谷、高靈、永川、慶州、淸道六郡에 限하야 林野査定公示를 當該各郡廳에 開하얏는데 … (大邱)

拓殖支店移轉披露

東洋拓殖會社裡里支店에서는 去十日午後七時부터 當地演劇場에서 移轉披露宴을 開하고 官公署其他諸氏를 招待하얏는데 … (益山)

視察團一行裡里着

京畿道廳主催로 組織된 全北水利組合視察團一行二十八人은 去八日 裡里에 來着하야 臨沃兩組合事業을 視察하고 十一日午前七時二十分發大田行列車로 出發하얏다더라 (益山)

開城文廟釋奠擧行

開城郡文廟에서는 去十一日午前十一時부터 年例에 依하야 秋期釋奠大祭를 擧行하얏는대 初獻官에는 郡守山崎二郎氏오 亞獻官에는 王羽淳氏及終獻官에 朴蓮燦氏外參祭員이 八十餘名에 達하얏다더라 (開城)

長監聯合討論會

本月十六日부터 同十七日까지 平壤南山峴禮拜堂에서 耶蘇敎長老派監理派의 聯合討論會를 開催된다더라 (平壤)

各地靑年團體

天道靑年會素人劇

天道敎靑年會益山支會에서는 陰八月十五日名節을 利用하야 [illegible] … (益山)

倭館靑年會臨時會

倭館靑年會에서는 去十一日午後二時倭館公立普通學校內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얏는대 會長鄭○國氏와 會計部幹事朴○禧氏가 不得已한 事故로 辭任하고 … (倭館)

海州第二公普計劃

海州公立普通學校는 年々就學兒童이 增加하야 現在校舍로는 志願兒童을 總히 收容치 못함으로 幾多學齡兒童이 入學치 못하는 가多한지라 此에 對하야 當地一般人士는 苦心하든바 本月十二日午後一時부터 海州郡守의 案內로 當廳에 有志諸氏가 會集하야 第二公立普校設立計劃을 協議하얏다더라 (海州)

金海女子夜學會

金海靑年會의 經營인 女子夜學會는 一般家庭婦人을 主眼삼아 여러가지의 新智識을 敎授하야 오든바 今般秋期에는 入學志願者가 倍加함으로 敎室이 狹窄함으로 不得已 年少者를 謝絶하얏스며 特히 同夜學會의 經費로 許璨氏가 每年一百二十圓、張斗承氏가 每年五十圓、金蕙在氏가 每年五十圓、朴秀夏氏가 每年四十圓、裵琪氏가 每年三十圓式을 擔當寄付케되얏다더라 (金海)

燕岐庭球團遠征

燕岐靑年會庭球團一行十九名은 去十一日午前八時南行列車로 大田에 到着하야 當地靑年會庭球團과 鼓戰한 結果 … (鳥致院)

文山靑年會臨時會

晋州文山面文山靑年會에서는 本月六日에 臨時總會를 開하고 左와 如히 議決하얏다더라

一、金炳九、崔明植兩會員處罰의 件

二、同會運動場修築의 件

三、會長龐東燮氏選定의 件 (晋州)

文井面明新學堂

鳳山十四面中에 文井面은 中心位置를 占하야 古時代에는 文學上人物이 他面에 不下하얏스나 現今二十世紀卽新文明發展時代를 當하야는 他面에 比하면 前進치 못함을 遺憾으로 生覺하든바 … (新義州)

丹城市民脚戲開會

丹城市民의 發起로 秋夕을 利用하야 舊八月十六日부터 脚戲會를 丹城面城內里廣沙場에서 開催하야 十八日外지 三日間 大々的으로 繼續할터인데 賞品은 如左하다더라

一等 牡牛一頭 唐木一疋

二等 唐木半疋 二成木一疋

三等 三成木半疋 (丹城)

金士淑氏의美擧

慶山郡邑內金士淑氏는 學資가 無하야 就學의 道를 得치 못하고 苦痛가운데서 虛送하는 靑年子弟를 痛惜히 여겨 彷徨하는 可能性이 잇는데 外에 [illegible] …

會員代表兩氏上京

平壤實業家白應賢氏及東亞日報平壤支局長金濬植氏는 本月十二日下午二時京城鐘路中央基督敎靑年會舘에서 開催되는 朝鮮人産業大會에 平壤同會々員의 代表로 參席코져 十二日朝上京하얏더라 (平壤)

金化面吏員講習會

江原道金化郡面吏員으로 庶務係에 勤務하는 面書記十二人은 八月二十二日부터 同二十八日外지 郡廳內에서 地方制度及面事務法規講習을 終了하고 翌日同郡優良面인西面을 視察하얏다더라 (金化)

裡里株式商會發起

湖南線裡里는 新開拓以來 … (裡里)

平壤漫筆

社會의 蝙蝠的人物

平壤支局 一記者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일뿐이오 禽獸는 언제든지 禽獸일뿐이다 그런데 사람이라 하면서도 사람답지 못한 [illegible] …

새소리

▲경성부 당국자에게 한마듸 못고자 [illegible] …

懸賞募集

本會에서 文藝獎勵키 爲하야 … 七言律 題 遠客坐長夜 押 賞 …

一等 一人 拾五圓也

二等 二人 拾四圓也

三等 四人 拾貳圓也

四等 十人 貳拾錢也

投稿期限 本年陰九月

投稿所 釜山草梁春秋詩社 (釜山府瀛州洞五五九五)

活動寫眞

◎九月八日(木曜)

喜劇 新寫眞順序 북쓰의曲乘 全二卷

米國갈렘會社作 活劇 車輪의響 全一卷

丁抹돌딕스會社作 悲劇 三人曲藝師 全三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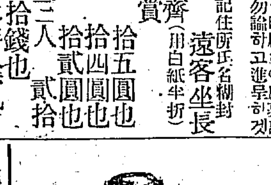
米國갈렘會社作 活劇 鷲의窟 全二卷

佛國파테支社米國아스트라映畫 連續活劇 幽靈騎手 全六卷 最終編 第十三編 第十四編 第十五編

京城授恩洞 團成社 電話九五九番

世昌鄭膏藥 … 世昌藥房

本店에서 學生帽子를 多數製造하야 都散賣一打以上은 特別割引이 有함



京城本町四丁目 電話一七一三 振替京城一九一

謹啓 本社의 前身인 共信號와 大元商店이 當地에서 開業한지 十數星霜에 多大하신 厚誼를 猥蒙하온바 … 切迅速을 圖하오며 … 江湖諸君子는 倍前愛顧하심을 至望하옵내다

共信合名會社

平壤府舘後里二八五番地
振替京城五七七一番
常務社員 方潤
同 李鎭淳

▲營業科目▼
各種洋襪織造、洋襪機械及附屬品、綿絲、染料直輸入販賣

李光淑鐵工場

京城府岡崎町七十一番地

나의 懺悔

世界的偉人吐翁의 눈물과 懺悔의 生活! 赤裸々의 自敍傳 … 定價七十錢 郵稅(書留)九錢

京城堅志洞 漢城圖書株式會社

本報第三八○號廣告欄에 揭載된 右書籍定價四十錢은 七十錢의 誤植이기 訂正함

慶南印刷株式會社

各種印刷 和洋帳簿 書籍出版

京城寬勳洞 …

見棄치못할 絶好機會의 買物期

사산物品은 거저되난 感謝日大賣出

第二回感謝 세-일의 大賣出

…九月一日부터 同三十日까지 … 感謝日大賣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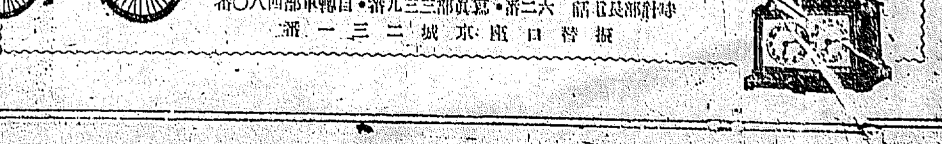
一、九月中이나 하로를 感謝日로 定하고 當日現金으로 …

二、感謝日은 十月三日 …

三、十月五日正午부터 大活動寫眞會 …

◎注意 …

營業科目 時計、寶玉石、貴金屬製品、貴婦人用裝身具、銀器、銅器、寫眞機械及材料一式、自轉車及附屬品一切、並蓄音機



京城本町一丁目
株式會社 大澤商會京城支店

[illegible]